

11개 종교 스카우트 지도자 한자리에

제4차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엄 개최 25개국서 종교 지도자 300여 명 참가

25개국 11개 종교 스카우트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카우트 활동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월 1~5일 익산 원광대 일대에서는 제4차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엄이 '가족과 종교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스카우트 활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세계스카우트 행사 중 하나인 이번 행사에는 불교, 원불교, 가톨릭,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그리스교, 말일성도교, 바하이교, 시크교, 대한민국 민족종교 등 25개국 11개 종교 지도자 및 스카우트 지도자 297명이 참가했다.

8월 1일 원광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광복 세계스카우트연맹 의장, 함종환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정세현 원광대 총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이번 행사의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전북에는 73곳의 종교 성지가 있을 정도로 다양성이 공존·융합해온 종교화합의 상징적인 도시다"며 "올 11월 전북에서 열릴 '2012 세계종교순례대회' 참석을 비롯해 '2014 한국잡버리대회'와 '2023 세계잡버리대회' 전북 유치에도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포지엄 기간에는 세미나, 워크숍, 각 종교성지탐방, 스카우트 모범 사례발표 등을 통해 스카우트 활동이 각 종교의 이념과 어떻게 접목·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종교가 주는 심리적 안정을 토대로 청소년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결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 원광대 송산기념관 앞에서 이뤄진 종교박람회에는 12개 종교관이 마련돼 행사 참가자들이 각 종교를 체험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줬다. 또 행사기간 동안에는 다도와 선(禪)에 대한 특별 강연도 진행됐다.

이밖에 청소년 종교캠프는 심포지엄에 동반한 청소년들과 한국의 대원들을 위해 4박5일 동안 여수엑스포 견학 및 선체협관 등에 참여해 한국의 문화와 맛을 체험하고 상호 교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5일간 이어진 행사기간 동안 김제 금산사, 전주 전통성당, 익산 신흥교 등 각 종교 성지탐방과 전주 한옥마을도 방문했다.

김덕영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여러 나라의 종교사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스카우트에서 종교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8월 1일 제4차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엄이 원광대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25개국 11개 종교 스카우트 지도자들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 종교심포지엄은 3년마다 개최되며 2003년 가톨릭 주관으로 스페인에서 처음 열렸고, 2회는 불교 주관으로 대만, 3회는 이슬람교 주관으로 우간다에서 각각 치러진 바 있다.

스카우트는 166개국 3600만명의 회원을 가진 청소년 국제기구로 유엔의 자문기관,

세계은행 및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의 자문기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청소년들의 심성과 영적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은 4년마다 세계잡버리 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원불교 종교관을 운영하는 등 원불교의 포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불교는 6월 스카우트연맹을 창단해 불교의 세계화 등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해 활동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시, 문화재 안내표지판 정비 나서

전통사찰 표지판 31일까지 정비 관광객의 눈높이 맞게 제작돼

전주시에 소재한 문화재 안내판과 전통사찰 표지판이 8월 31일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전주시(시장 송하진) 측은 "전통사찰을 비롯한 문화재 안내판이 각양각색이며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색상으로 제작돼 있는 것이 많아 문화재의 가치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몇몇 안내판에는 오타와 훼손된 곳이 많다"며 "관광객의 시선과 높이에 맞추어 정확하면서도 쉽고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고산성 방향의 전통사찰 및 방

향표시 안내판은 노후된 곳이 많아 전면 정비에 나설 방침이며, 진입 골목마다 설치한 개별 안내판은 하나의 안내판으로 통합된다.

김신 문화경제국장은 "안내판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정비될 예정이다. 이번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계기로 전주시가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문화재는 국가지정 14곳, 도지정 34곳, 전통사찰 11곳 등 60여 개소의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이중 문화재가 위치한 장소 안내 표지판 및 문화재의 정보전달을 위한 설명 안내판 등 70여 개가 설치돼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 서겠다

혜심 진각 국사 열반 767주기 추모제 및 학술대회

조계종 제2세 국사인 진각국사 추모제가 전남 화순에서 개최된다. (사)생활불교협의회(회장 대한)는 8월 13일 화순군민회관에서 '혜심 진각 국사 열반 767주기 추모제 및 학술대회'를 연다.

진각 국사 탄생지이기도 한 화순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1시 추모제(영산기능정수자 거산 스님, 범장 스님)에 이어 오후 1시부터는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학술대회에는 ▷진각 국사의 생애와 불교사적 위치(이희재 광주대 교수) ▷진각 국사의 간화선(최성렬 조선대 교수) ▷진각 국사의 선시(정상기 호남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와 원운 스님(백양사), 현불 스님(생활불교협의회 총재)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행사 준비위원 대한 스님은 "진각 국사는 화순을 대표하는 가장 큰 어른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는데 미흡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대중화 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혜심 진각 국사는 고려 중기의 국사로 지눌 스님의 제자로 수선사 제2세가 돼 지눌 스님의 뒤를 이어 간화선(看話禪)을 크게 떨쳤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린이 전용 수행 공간 마련 하고파”

광주 천통사 주지 무등 스님 30년 넘게 어린이포교 매진

1980년대 광주지역에서 어린이법회가 열린 사찰은 23군데였다. 현재 광주에서 어린이법회가 진행되는 곳은 2-3군데에 불과하다. 15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에서 불과 2-3개 사찰만이 어린이 포교를 진행하는 실정이다.

“어린이는 나라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공동입니다. 또한 어린이는 불교의 미래입니다. 때문에 어린이 포교는 불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천통사 주지 무등 스님(사진)은 “이는 광주만이 아닌 한국불교 미래의 어두운 자화상”이라며 포교의 당위성에 대해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다양한 여름캠프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곳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청소년 공동체 나무숲(이하 '나무숲')에서 진행되는 어린이 생태학교와 청소년 지리산 마음캠프, 자연따라 마음따라이다.

나무숲 대표를 맡고 있는 무등 스님은 천통사에서 7월 31일-8월 2일까지 어린이 불교교과를 진행했다. 무등 스님의 어린이 포교는 지난 1980년대 초에 시작했다. 당시 광주불교어린이지도자 연합회와의 인연으로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왔다.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이 있었다. 지도교사들의 모임을 갖고, 자체적인 연수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연꽃동네'라는 교재를 광주지구 자체적으로 만들어 어린이 법회 교사와 공유한 것이다.”

그 후 무등 스님의 어린이 포교 인연은 전국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소임을 맡으면서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당시 어린이 법회는 워낙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여름불교학교에는 당시 군법당이었던 무각사에서 500~6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기도 했다. 10년 가까이 시민회관에서 각 사찰 어린이 법회에서 마련한 장기자랑 잔치인 '어린이 연꽃잔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교사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불무회'를 조직해 매월 정기모임과 함께 활발한 교류활동도 진행했다.”

하지만 2012년 광주 어린이 포교는 이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몇 군데 불교단체와 사찰에서 방학을 이용한 어린이불교교과가 개설되는 것이 전부이다. 무등 스님은 “위기가 기회인 셈”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어린이 법회를 만들고 포교활동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사 확보와 재정확보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몇 개의 사찰에서 어린이 법회가 개설되면 자연히 지도교사들의 교류확대와 정보공유가 뒤따르고 다양한 협력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어린이법회의 성공은 곧 청소년, 대학, 청년부로 이어져 선 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무등 스님은 여름이면 어린이 행사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를 지경이다. 그런 스님에게 바람이 딱 한 가지 있다. 바로 '어린이를 위한 전용공간' 마련이다.

스님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불교 수행을 하고 다른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인간적인 교류와 사회성을 익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북 카페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기”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아름향 book-cafe' 개관

“이제 북 카페로 오세요. 이곳은 좋은 책과 마음을 나누는 장소입니다”

송광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재)은 지난 7월 26일 복지관 1층에 송광나눔드림작은도서관 '아름향 book-cafe'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교 스님, 도재 스님,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동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도재 스님은 인사말에서 “본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도서

와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민들의 지식보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여가생활 형성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관한 북카페는 광주시 지원금 1700만원으로 총면적 76.72㎡에 열람도서를 비치하고 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주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여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미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